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Project-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41/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주제인 **정서**와,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  
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  
(沈默)이 흠뻑 지리함죽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짜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1연. 시상/정서가 촉발되는 연.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산, 넘어 큰 산, 그 넘엇 산, 안보여서  
구름을 탑니다. 즉 뭔가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뭔가 보고 싶은데 안보이면 어떨까요?  
바람이 실현 된 상황은 아니겠죠?

2연.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산의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  
다.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이군요. ,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산은 이것 저것 포용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나 봅니다.

3연. 산이 침묵하고 있네요.

4연. 산이 침묵을 깨고 화염에 의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5연. 시상이 집약되는 연.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즐거이 뛰  
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왜 기다리나요? 뭔가 바람이 있으니,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적대적 관계인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뛰어 논답니다. 즉, 화합을 말하겠지요.

주제를 정리합시다. 핵심 소재 : 산, 서술 : 변화를 기다림.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  
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주제에 집중합시다.

바로 보이나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주제인 화자의 바람 표출. 답 3번이군요.**

오답을 잠시 쳐내보면,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  
러내고 있다.

바람=기다림, **미래**에 대한 서술입니다. 회고나 과거로 가는 선지는  
오답입니다.**tip 가나다 비교 문항 (feat. 상호 텍스트성)**

수능은 거의 항상 2작품 이상을 문학에 세트 구성을 하여 출제해왔  
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텍스트적 감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함이었  
습니다. 상호텍스트 성이라 함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텍  
스트를 연결해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 같이 주어지 읽게 되는, 혹은  
이전에 읽었던 작품/텍스트와 관련지어 지식을 구성하고, 감상의 폭  
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것을 상호텍스트적 읽기라 하고, 문학교육에  
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문학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따라서, 세트 문항은 공통점이 매우 명확한 문제들입니다. 바꿔말하  
면 한 작품만 제대로 감상해도 문제 접근에 큰 지장이 없어집니다.  
위와 같이 바로 답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1~2행. 시상/정서가 촉발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물이 되어 만나면 가문 어느 집에서  
좋아하지 않으랴?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 물이 되어 만나야 겠구나. = 바람  
= 기대 = 기다림의 상황이 되겠군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중간. 시상/정서가 전환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그러나' 집중해야 하는 표지.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지금은 불로 만나니, 바람이 있을 상  
황은 아니고, 물 = 긍정, 불 = 부정적 대상으로 읽을 수 있겠군요.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마지막. 시상/정서가 집약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불 지난 뒤에 물로 만나자. 올 때는 넓  
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부정적인 불이 가고, 긍정적인 물이  
되어서,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는 것을 바라고 있구나

주제를 정리합니다.

**주제 : 부정적인 불 지난 뒤, 긍정적 물이 되어, 넓고 깨끗한 하늘에  
서 만나자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불 때 '화염'이 치밀  
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겠군.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  
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가)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나) **주제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가) 4번선지 바꾸려 한다 ≠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나) 4번선지 자연친화 ≠ **주제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다시 한 번 주제를 정리합니다.

**주제 : 부정적인 불 지난 뒤, 긍정적 물이 되어,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자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불 : 부정**

**물 : 긍정**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핍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부정적 존재를 소멸시키고,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다)

㉠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릿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 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주제를 정리합니다. 문학 작품의 주제는 마지막에 집약됩니다. (수필도 마찬가지)

**주제 : 눈은 명상적이다. 혼자있게 되면, 고요하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 긍정적이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답이 보이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항.

마지막 문항은 작품과는 크게 상관없는 표현하기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세트 구성상 간략한 해설을 덧붙이면, 선경 후정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 묘사와, 그에 따른 감각/정서 표출이 있는 선지는 5번 밖에 없습니다.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 =>선경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 =>후정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 ㉠을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지금까지의 수업을 정리합니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꼭 기억바랍니다.

추가로...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아! 다르고 어! 다르다〉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기준이 명확하다〉

tip 가나다 비교 문항 (feat. 상호 텍스트성)

이 내용도 기억해 활용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학년도 6월 풀어봅시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의 속성(포용력)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부정적 현실 인식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긍정적 미래 전망

육식 X

(뿔내를 잇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짜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평화, 화합, 긍정적 전망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①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②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감하게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통념 부정, 그러나 여기는 긍정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통념 부정, 여기는 긍정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릿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성찰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 1. 주제 구성 문체 소재 표현
- 2. 서사+비문학+서정
- 3. 주제:깨달음(마지막 단락)

주제:눈 긍정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표현을 통해 회고적인?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물불) 물로 만나자 필요시 발체독**
- ④ (가)와 (다)는 비유적?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점층적으로 나열하여?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부정적 현실**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긍정적 전망**
- ③ (나)에서 '만나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긍정적 전망**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주제 자연친화 물아일체**
- ⑤ (가)의 '핏내를 잊은 ~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물:+

불:-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빙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제**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